

시민들 충격·불안 속 “냉철하게 대응하자”

‘김정일 사망’ 지역민 반응

대북교류단체 “평화정착 계기로 삼아야”

갑작스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상황일수록 정부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북한과 민간교류를 해온 시민단체 등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이번 상황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7시 36분 해질녘 17시 23분 달빛 02시 21분 달빛 13시 30분

19일 오후 7시 36분 해질녘 17시 23분 달빛 02시 21분 달빛 13시 30분

서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이모(48·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더 경색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다 사망 소식을 들었던 박모(55·강진군)씨는 “갑작스런 소식에 너무 놀랐다.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크게 동요했다. 일본인 유학생 이치카와(여·31)씨는 “일본 집에서 전화를 걸어와 한국이 위험하니 고향에 돌아오라고 하더라”며 “갑장 한국이 위험해 질 것 같지는 않지만 북한이 후계체제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이날 주식시장이 한때 급락하자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북한 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일회일비’하기 보다 장기적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행인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소식을 다른 광주일보 호외를 읽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지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우리민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으로 한반도가 불안에 휩싸이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상황인식과 평화수호의 의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사망하게 돼 안타깝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화체널을 회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6분 해질 17시 23분 달빛 02시 21분 달빛 13시 30분

농작물 관리 유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었다.

| | | |
|-----|------|------|
| 광주 | 맑음 | -2/7 |
| 목포 | 맑음 | -1/7 |
| 여수 | 구름조금 | 1/8 |
| 나주 | 구름조금 | -5/7 |
| 완도 | 구름조금 | -1/7 |
| 구례 | 맑음 | -3/7 |
| 강진 | 구름조금 | -4/7 |
| 해남 | 구름조금 | -4/7 |
| 장흥 | 구름조금 | -4/7 |
| 순천 | 맑음 | -1/7 |
| 영광 | 맑음 | -3/6 |
| 진도 | 구름조금 | -3/7 |
| 전주 | 맑음 | -3/6 |
| 군산 | 맑음 | -3/6 |
| 남원 | 맑음 | -7/6 |
| 홍산도 | 구름조금 | 4/7 |

| 바다 | 중랑 | 파고 | 체감온도 | 동파지수 | 뇌졸중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m | 0.5~1.0m | 관심 | 보통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0.5m | 0.5~1.0m | 관심 | 보통 |

| 바다 | 중랑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0.5m | 목포 09:49 | 02:34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0.5~1.0m | 여수 05:09 | 11:13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1(수) | 22(목) | 23(금) | 24(토) | 25(일) | 26(월)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7 | 0/3 | -5/0 | -4/1 | -4/2 | -4/2 |

조선대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한다

이사회, 대학평의원회에 제도 개선안 요청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강현욱)는 19일 서울 파레스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등 전호준 총장 사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우선 지난 11월28일 전호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차기 총장(15대) 선출시까지 이 상열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

했다.

특히 이사회는 선거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었던 총장선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15대 총장선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대학평의원회가 차기총장 선출 방안을 도출할 경우, 검토해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호준 총장 사퇴를 물고왔던 비상대책위가 이상열 부총장의 총장 직무대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장 직무대리 임명시 갑수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의 선임을 요구해놓은 상황에서도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차기총장 선출 방안으로 직선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첫 임명제 학장 탄생

수의과대학장에 이봉주 교수

전남대가 수의과대학 학장을 단과대학장으로서 처음으로 선거없이 직접 임명했다.

전남대는 19일 수의과대학장에 이봉주 교수(48)를 임명·발령했다고 밝혔다. 총장이 단과대학 학장을 직접 임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전남대에서는 첫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선제 등으로 과열된 대학 내 학장 선거 분위기를 식히고자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국립대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신인 학장은 2013년 말까지 2년간 동물병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이 학장은 목포고와 전남대 수의학과를 거쳐 호주 머독대학교에서 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제설 긴급동원지침’ 만든다

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제설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폭설 예보가 있거나 눈이 몇 cm 이상 내리면 자동으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제설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설 SOP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새벽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제설작업에 동원하려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SOP를 마련하면 시민불편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cm가량 적설량을 보인 지난 16일 제설작업이 미진해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병록 행정부시장 주재로 급주 내에 SOP를 마련할 계획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피의자 신문시 메모 허용하라”

인권위, 검찰에 권고

인권위, 검찰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메모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메모 금지 관행을 개

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메모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어 “메모의 허용은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뉴스

광주·전남북 총경급 인사

북부서장 하태욱

광산서장 권두섭

함평서장 권영만

경찰청은 19일 광주지방경찰청 하태욱 경무과장을 북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광주·전남·전북 30명 등 총경급 35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광주지방경찰청 권두섭 홍보담당관은 광산서장, 우형호 청문감사담당관은 남부서장, 김도기 장수서장은 홍보담당관, 교육중이던 김영창 총경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박석일 고흥서장은 경무과장, 김재석 북부서장은 생활안전과장, 오운수 생활안전과장은 정보과장, 김진희 남부서장은 보안과장, 백예용 광산서장은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됐다. 양성진 정보과장과 최근 승진한 김성철·박영덕 광주경찰청 총경 승후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전남지방경찰청의 박승

주 해남서장은 홍보담당관에, 홍덕기 총경이 정보통신담당관, 이원영 총경은 생활안전과장, 김명호 총경은 경비교통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치중 함평서장은 교통서장, 안동준 경비교통과장은 해남서장, 권영만 정보통신담당관은 함평서장, 안병호 홍보담당관은 영암서장, 송두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은 무안서장, 교육중이던 박순기 총경은 구례서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전북지방경찰청 최홍선 익산서장은 홍보담당관, 조계훈 남원서장은 청문감사담당관, 나유인 군산서장은 생활안전과장, 남기재 총경은 수사과장, 황대규 홍보담당관은 정보과장, 하태준 정보과장은 군산서장에 발령됐다.

이와 함께 조영식 김제서장은 익산서장, 박춘원 청문감사담당관은 남원서장, 이상수 수사과장은 김제서장, 이승길 생활안전과장은 임실서장, 강윤경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순창서장, 최호순 총경은 장수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Le쿠스쿠스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Merry Christmas

쿠스쿠스: 광주수완점
광주신세계점(12월 OPEN)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